KLPGA투어 프로골퍼 이정은(사진왼쪽)·장은수

이정은, 골프 전관왕 도전

KLPGA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ADT캡스 챔피언십 출격

이정은(21·토니모리)이 전관왕에 도전한다.

KLPGA투어의 2017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 2017(총 상금 5억원, 우승 상금 1억원)이 10일부터 사흘간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72·6468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ADT캡스 챔피언십은 초대 챔피언 최나연(30·SK텔레콤)을 비롯해 서희경(31), 신지애(29·쓰리본드), 김민선5(22·CJ오쇼핑), 오지현(20·KB금융그룹) 등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한 대회다.

특히 매시즌 맹활약한 선수들이 참가,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골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해 정규투어 상금순위 60위까지였던 출전자격이 올해는 70위까지로 확대돼 총 85명의 정예선수 전원이 시즌 마지막 트로피를 놓고 최종라운드 치열한 정면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이정은의 전관왕 달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상을 확정한 지난달 22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일요일마다 타이틀을 하나씩 확정하고 있는 이정은은 현재까지 대상, 상금왕, 다승왕 타이틀을 확보했다.

이정은의 '전관왕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평균타수 부문에서 0.37의 격차를 뒤집고 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2위를 달리고 있는 고진영(22·하이트진로)이 25언더파 191타라는 역대 54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을 달성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정은은 "시즌 초 세웠던 올해 목표가 상을 휩쓰는 것이 아니었는데, 매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만큼 시즌 내내 그래왔듯이 승수 쌓는 것에만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생애 단 한 번인 신인왕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장은수(19·CJ오쇼핑)와 박민지(19·NH투자증권)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장은수와 그 뒤를 쫓고 있는 박민지의 포인트 격차는 112점이다.

박민지가 순위를 뒤집고 신인왕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190포인트를 받아야한다. 박민지가 우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장은수가 공동 7위보다 밀려날 경우에만 신인상 포인트 1위를 탈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내년도 시드권을 보장받기 위해 상금 6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다.

KLPGA는 전년도 KLPGA투어 상금랭킹 60위 선수까지 1년간 시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금 60위권 내외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번 대회가 시드권 확보의 마지막 기회다.

상금 58위를 기록중인 입회 9년차 박주영(27·호반건설)을 비롯해 지난 시즌 시드순위전 1위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던 현 상금 60위의 이효린(20·미래에셋), 2012년 메트라이프-한국경제 제34회 KLPGA 챔피언십에서 깜짝 우승하며 올해까지 5년간 시드권을 받은 현 상금 63위의 정희원(26·파인테크닉스) 등이 내년 시드권 확보를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

제18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과 함께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이승현(26·NH투자증권)과 디펜딩 챔피언 조윤지(26·NH투자증권)도 시즌 마지막 대회의 트로피를 노린다. 시즌 3승을 기록 중인 김지현(26·한화)도 이 대회에서 승수를 추가해 공동 다승왕 타이틀을 손에 넣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오지현(21·KB금융그룹), 고진영(22·하이트진로), 배선우(23·삼천리)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뉴시스

문규현, FA 계약 1호… 2+1년·10억원 '롯데 붙박이'

문규현(34)이 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제1호 계약' 선수가 됐다.

롯데는 FA 문규현과 계약기간 '2+1'년, 총액 10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0라운드에 롯데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를 밟은 문규현은 올해까지 롯데에서만 뛴 '롯데맨'이다.

통산 863경기에 출전한 문규현은 타율 0.247 20홈런 218타점 22도루 227득점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문규현은 꾸준히 100경기 이상에 출전해 안정적인 내야 수비와 작전 수행 능력으로 팀에 기여했다.

올 시즌 문규현은 타율 0.270(304타수 82안타) 6홈런 42타점 38득점을 기록했다.

문규현은 "16년 동안 롯데에서만 뛰었다. 팀과 나를 나누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 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박효신 "좋은 자리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만찬서 정재일과 함께 '야생화' 편곡된 버전 선보여

가수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 국빈만찬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글러브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날 국빈만찬 무대에서 전방위 뮤지션 정재일과 함께 정규 7집 '아이 엠 어 드리머(I am A Dreamer)'의 타이틀곡 '홈(Home)'에서 '야생화'로 이어지는 특별히 편곡된 버전의 '야생화'를 선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해가고, 그 안에 있는 너와 나의 모습도 변해가고'라는 '홈(Home)'의 가사로 시작해 정재일의 역동적인 피아노 연주 후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이어져 명곡 '야생화'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날 박효신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 "제가 들려드릴 곡은 '야생화'라는 곡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려 다시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노래"라며 '야생화'를 소개했다.

박효신과 정재일은 국빈만찬 무대를 위해 오랜 시간 편곡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은 KBS 교향악단과 함께한 무대인만큼 밴드 요소를 배제하고 피아노와 관현악 위주로 편성됐다.

글러브는 "이번 '야생화' 특별 편곡 무대는 정재일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고 KBS 교향악단의 관현악 연주가 더해져 웅장함이 느껴지는 무대였다"고 소개했다.

'야생화'는 박효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지난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 영빈관에서 재생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런 인기에 힘 입어 청와대 인스타그램은 이날 박효신의 사진을 올렸다.

행사 자체가 비공개였던 만큼 전날 리허설 사진으로 대신했다. 그럼에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개 이상 달렸다.

청와대는 인스타그램에 "비공개 행사라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하지 못해 박효신 팬클럽인 '소울트리' 분들께서 많이 서운해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진을 준비했다"면서 "아쉽게도 오늘 공연 장면은 아니지만, 어제 리허설 중인 '대장'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박효신은 공연 후 소속사 글러브를 통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파다르·이다영, V리그 1라운드 남녀 MVP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파다르와 현대건설 이다영이 도드람 2017~2018 V-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8일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파다르는 기자단 투표 29표 중 총 11표를 획득하며 남자부 1라운드 MVP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파다르는 득점과 서브 부문 1위, 공격 종합 부문 2위를 차지하며 동시에 3경기 연속 트리플크라운을 기록하는 등 1라운드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총 16표를 획득한 현대건설 이다영은 1라운드 여자부 MVP를 차지했다.

이다영은 세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현대건설이 개막 이후 4연승을 하는데 일조하며 영예를 안았다.

여자부는 8일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 예고된 수원실내체육관, 남자부는 9일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의 경기가 열리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시상한다.

/뉴시스

'40-40 클럽' 이근호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MVP

'40(골)-40(도움) 클럽'에 가입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강원FC의 이근호가 3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FC서울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0 완승을 이끈 이근호가 37라운드 MVP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근호는 김승용의 선제골을 도우며 K리그 15번째 '40-40클럽'(개인통산 67골·40도움) 가입자가 됐다.

이근호는 팀에서 가장 높은 316의 투아이지수를 기록했으며, 공격형 패스 성공률이 81%에 달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37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이근호를 포함해 주민규(상주), 에반드로(대구)가 이름을 올렸다. 임찬울(강원), 이재성(전북), 룰리냐, 심동운(이상 포항)이 미드필더로 뽑혔고 홍철(상주), 김오규(강원), 김용환(인천)이 스리백을 형성했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이진형(인천)에게 돌아갔다.

/뉴시스